

한국십진분류표 100: 철학

2024년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책의 이름표이자 주소인
한국십진분류표에 맞춰 각 분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달의 주제는 한국십진분류표 100, '철학'입니다.

철학의 체계, 동·서양 철학, 심리학, 윤리학 등의
철학 관련 도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도서관과 오늘 철학 도서 읽기와 쇼펜하우어 열풍	04
주목! 이 도서 철학 분야 1위 도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벌써 마흔이 된 당신에게 해 주고 싶은 말들 42》	08
도서관 산책 세상과 삶의 의미를 다잡는 가장 깊은 물음과 마주하다	10

오늘의
도서관

발행일 2024년 2월 29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배명희, 손효림, 이은경, 한숙희
편집 예은하 today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23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3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brary1004>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표지 이야기 / 일러스트 **민지홍**
《오늘의 도서관》3월호 주제는 ‘철학’입니다.
책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철학자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책을 읽음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지혜를 접하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서관을 만나다

사서 큐레이션 도서관 실감 콘텐츠로 만나는 한국의 고전문학	14
오늘의 만남 “문학은 최고로 세련된 언어로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장 문정희	18
꿈을 이루는 도서관 생명애(愛)로 초등 독서교육 심.페.소.생. ‘대전석교초등학교 도서관’	22
보물을 찾아서 인도를 대표하는 지식인 ‘타고르’와 인도국립도서관	26
도서관 트렌드 Born Digital 세대와 독서,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	30

서재를 걷다

문헌의 가치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 방목(榜目)	34
문학상 읽기 로망 가리 《자기 앞의 생》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살 수 없다	38
나를 바꾸는 독서 마크 피셔, 《자본주의 리얼리즘: 대안은 없는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인 시대의 감각	42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3월, 설렘 가득한 봄맞이 인기 도서는? ‘최근 3년간 3월 인기 급상승 도서 분석’	46
똑똑한 독서 생활 두꺼운 철학책도 어렵지 않도록 철학책을 읽기 위한 세 단계	48

함께 나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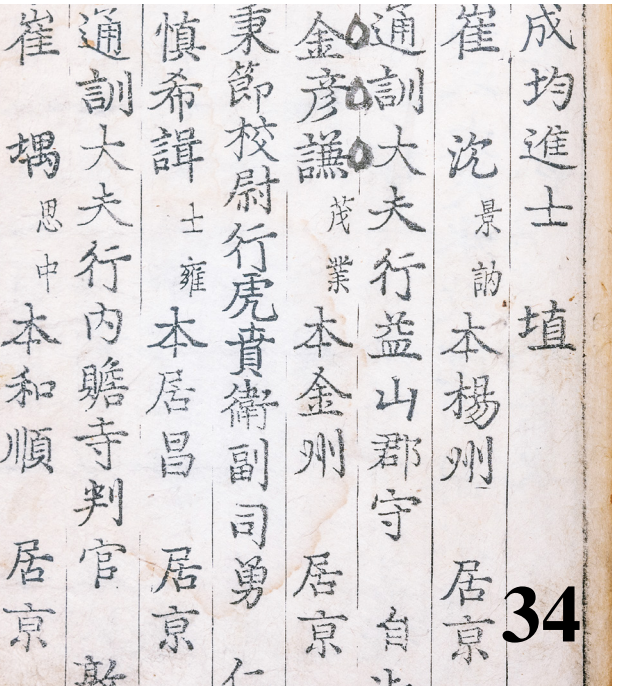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2
국내외 도서관 소식	56
한 장의 감성	59



18



26



34



38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 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r.or.kr

철학 도서 읽기와 쇼펜하우어 열풍

작년부터 국내 철학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철학자는 단연 쇼펜하우어다. 최근 쇼펜하우어의 인기를 반영하듯 시종에는 쇼펜하우어에 대한 번역서와 저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쇼펜하우어의 집언을 모아 소개하는 영상도 많아지고 있다.

글 강용수(《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저자)



한국십진분류법(KDC)의 철학이란?

도서관의 자료 주제를 열 가지로 구분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오늘의 도서관'을 살펴본다. 두 번째 분류인 철학에는 동·서양 철학, 심리학, 윤리학 등이 해당한다.

쇼펜하우어 신드롬

10년 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된 후 철학책이 요즘처럼 대중의 사랑은 받는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 '철학'이라고 하면 난해하면서 추상적인 언어로 쓰인다는 선입견을 깨고 서점가는 지금 철학, 특히 '쇼펜하우어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년 8월에 필자가 30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도 '쇼펜하우어 신드롬'에 속한다.



쇼펜하우어 흉상 ©Shutterstock

많은 사람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공감하는 이유

사실 '서른', '마흔'으로 시작되는 자기계발서는 예전에도 많았고 번역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도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왜 최근 그 인기가 급상승한 걸까. 그 이유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독자들의 요즘 고민과 딱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쇼펜하우어식 철학은 '팩트 폭행'이자 '뼈를 때리는 진실'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인생에 막연히 희망을 가지거나 노력을 요하는 식의 책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쾌락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요즘 현대인의 고민거리에 대한 조언

또 다른 쇼펜하우어의 인기 비결은 현대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다. '고슴

도치의 우화'를 통해 쇼펜하우어는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로 상처를 주게 되고 멀어지면 추위를 느끼는 딜레마를 통해 인간 실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람은 친한 관계일수록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다. 또한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렇다고 타인과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지내라는 식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 만날 때 무엇보다 상처를 주지 않는 '정중함과 예의'를 갖추 것을 강조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가시를 높히는 지혜를 고슴도치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욕망에서 생겨나는 고통을 조절하기 위해 “작은 것에 만족하라”고 말한다. 인간은 영원히 살려는 맹목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막상 인간의 욕망은 충족되면 권태와 지루함에 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결핍과 권태 사이로 오고 가는 시계추’에 비유한다. 돈이 없으면 가난에 고통받지만 돈이 넘쳐나면 그 가치를 잊고 따분함에 고통받는다. 짧은 인생은 슬프지만 영원히 사는 것도 지루하다. 오늘날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의 시대다. 풍족함 속에 오히려 인간은 삶의 가치를 잊고 지내면서 따분한 삶에 고통받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교양을 쌓는 것이라고 한다. 결핍과 고통이라는 양극단을 피하고 결핍에서 만족으로 넘어가는 ‘짧은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충고다.

셋째, 삶든 죽든 “인생을 긍정하라”는 조언이다.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에서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혼 기피에 따른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종족 보존의 차원에서 비판한다. 사랑이 하나의 환상이라는 하지만 미래세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살에 대해서는, 삶의 부정인 것처럼 보이는 극단적인 행위가 사실 삶에 대한 강한 긍정이라는 역설을 말한다. 즉 자살을 감행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돈이든, 건강이든, 행복이든 강한 열망을 가졌는데, 그 꿈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삶에 집착이 없는 사람은 자살하는 일이 없다.



넷째, 인생에서 겪는 고통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통은 잘 인지되지만 쾌락은 인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들면 아프지만 건강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 만약 인생의 수많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 고통은 인생이란 바다를 향해할 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바닥짐’의 역할을 한다. 아무런 짐이 없는 가벼운 배가 작은 파도에도 뒤집히듯이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파산하기 쉽다. 고통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더 많은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

다섯째, “자신의 개성을 찾아 남에게 기죽지 말고 살라”는 주장이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살다 보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신의 욕망과 능력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인식해야 비로소 자신을 긍정하게 되면서 염세적인 생각을 넘어서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바깥에서 얻는 자존감과 자신에게서 찾는 자긍심을 구분한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 얻는 자존감보다는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자긍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존감이 깨어져도 자긍심은 지켜야 한다.

MZ세대도 열광하는 철학

끝으로 많은 쇼펜하우어 관련 저서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쇼펜하우어의 반전 매력 때문일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염세적인 생각만 한 것은 아니다. 염세주의자였지만 현실에 밝았고 자살을 말했지만 장수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쇼펜하우어 신드롬은 비단 40대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 현실의 고통을 인지하고 그것을 넘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독자층이 있기에 그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쇼펜하우어는 돈의 중요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가지려는 MZ세대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❶

강용수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동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서양철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와 강의에서 쇼펜하우어와 니체 철학을 바탕으로 자기 긍정과 행복을 위한 방법을 전하고 있다.

철학 분야 1위 도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벌써 마흔이 된 당신에게 해 주고 싶은 말들 42》

철학 분야의 도서관 도서 대출 순위를 살펴보면 1위 도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벌써 마흔이 된 당신에게 해 주고 싶은 말들 42》가 단연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개정판 출간과 역주행을 거듭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 책을 둘러싸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글 김현식(문화평론가) 사진 출판사



〈철학 분야 도서 대출 순위〉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1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벌써 마흔이 된 당신에게 해 주고 싶은 말들 42》	김혜남 지음	메이븐	2022
2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임스 클리어 지음 이한이 옮김	비즈니스 북스	2019
3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지음	열림원	2021
4	《도둑맞은 집중력: 집중력 위기의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요한 하리 지음 김하현 옮김	어크로스	2023
5	《마흔에 읽는 니체: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장재형 지음	유노북스	2022

* 대출 순위 조사 기간: 2023년 2월 1일~2024년 1월 31일(아동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정신과 상담 너머의 위로

최근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겸 유튜버 마크 맨슨(Mark Manson)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로 규정한 일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 상담을 잘 받지 않는데 그 이유가 유교사상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정말 그럴까. 정신과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유교사상 때문인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정신과 상담만이 정답일까? 마음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존재적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 김혜남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벌써 마흔이 된 당신에게 해 주고 싶은 말들 42》라는 책을 읽다 보면 독자들이 바라는 치유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

의사로서의 삶을 활짝 펼쳐놓은 책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저자는 책에서 독자에게 말을 건넨다. 그의 글을 보면 누가 환자이고 피상담자인지 알 수 없다. 저자가 곧 환자이자 상담받는 사람이며, 의사이자 상담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같은 처지인 사람의 이야기일수록 귀를 기울이고 공감을 한다. 에세이가 갖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전문가의 에세이는 이래야 하는구나 싶다. 책이 어떤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한다. 먼저 저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활짝 열어 보이고 살아온 인생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완벽주의자로 살아온 삶의 결과를 성찰하며 어딘가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를 독자들의 삶을 공감시킨다. 특히 한창나이인 30~40대 독자들이 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것을 고려한다. 무엇보다 이래라저래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마치 선배가 이야기하듯 스스로 체득한 삶의 깨달음을 진솔하게 밝혀 공감을 일으킨다.



공감과 위로의 넓은 스펙트럼

저자의 처지가 깊은 공감을 얻기도 한다. 파킨슨병으로 몸이 굳어지는 가운데 책을 쓸 뿐만 아니라 의사,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살아온 삶에서 숙연한 희망을 느끼게 한다. 남들은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하면 절망과 우울의 불행한 일상을 보내지만, 저자는 오히려 여유 있고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를 실천한다. 자신이 스스로 임상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를 나누기에 더 공감을 준다. 무엇보다 이 책은 무지개 프리즘 같다. 폭이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의 지혜를 담고, 아내와 엄마로서 고민하고 해결한 방법들을 전하기도 한다. 아울러 시어머니를 모셨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 경험을 나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목표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번아웃이 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갖게 한다.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는 이들에게 소소하지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부드러운 일깨움을 준다.

철학적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인 요인도 있다. 한국의 경제사회는 급격하게 성장한 반면 기존의 가치관들은 힘을 잃었다. 지금 같은 저성장기에는 개인의 역량과 노력으로 성취할 여지가 적다. 이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개인과 가족, 공동체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독자들은 김혜남의 《내가 만일 인생을 다시 산다면: 벌써 마흔이 된 당신에게 해 주고 싶은 말들 42》를 펼쳐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독자들이 인생 2막을 고민할 때, 의사로서의 삶과 파킨슨병 환자로서의 삶을 모두 살아본 저자의 조언은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다. 2015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굳게 자리를 지킬 만큼 이 책에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할 법한 ‘보편성’이 담겨 있다. ❶

김현식 •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중원대학교 특임 교수이자 미래학회 연구 학술인이며, 대표 저서로는 《문화로 읽는 세상》이 있다.

세상과 삶의 의미를 다잡는 가장 깊은 물음과 마주하다

철학은 가장 오래된,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되는 분야다. 한국십진분류표에서 종류 다음으로 가장 앞의 자리인 100번대에 놓인 이유는 여기에 있겠다. 하지만 철학은 어렵고 힘든 분야로 여겨지기에 좀처럼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100번대 서가에서 보람과 재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 안광복(《도서관 옆 철학카페》저자)



서가 속 시간의 숲 거닐기

인간의 두뇌는 변온동물과 같다. 분위기에 쉽게 휩싸인다는 뜻이다. 주변이 떠들썩하면 기분이 덩달아 달뜨고, 조용할 때는 같이 차분해진다. 생각을 모으거나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때 도서관을 찾게 되는 이유다. 잔잔한 분위기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책등에 적힌 제목들만 살펴도 생각거리들이 샘솟지 않던가. 이 점에서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숲 산책과도 같다.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듯, 책들이 내뿜는 지적 양분을 한껏 들이마시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도서관을 버거워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에게는 뻑뻑하게 들어찬 책의 숲이 되레 부담으로 다가온다. 알아야 할 것, 공부해야 할 것이 저렇게 많은가 싶어 겁부터 난다. 그러나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도, 읽을 필요도 없다. 산책하듯 서가를 훑는 것만으로도 지적 자극을 받으며 지식의 흐름과 변화, 관련 분야의 성격 등을 꿰뚫게 되는 까닭이다.

한국십진분류표가 보여주는 철학의 진리나무

오늘 소개할 100번대 철학 분야의 하위 분류를 살펴보면, 그 자체로 철학의 근본 뼈대를 튼실하게 보여준다. 중세의 학자들은 철학을 다음과 같은 '진리나무'로 표현하곤 했다.

〈철학의 진리나무〉		
뿌리	형이상학(110)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세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지	인식론(120)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를 이루는 조건은 무엇인가?”
수맥	논리학(170)	“오류 없이 제대로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열매	윤리학(190)	“선하고 아름다우며 바람직한 행동과 삶은 어떤 것인가?”

철학의 핵심 분과는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이다. 위에서 보여주듯, 이 네 분야는 세상과 삶에 대한 가장 깊은 물음을 품고 있다. “도대체 왜 살까?”, “내 삶에는,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물음은 형이상학과 관련이 깊다. 이 물음에 “신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면, 이 사람에게 진리란 ‘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나아가 제대로 된 생각이란 ‘신의 말씀’이며, 올곧은 삶이란 ‘신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꾸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반면, 삶의 의미를 찾는 형이상학 물음에 “진화와 생식의 결과로 내가 태어났을 뿐”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어떨까? 진리를 묻는 인식론의 물음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이라고 답할 듯싶다. 좋은 삶에 대해서는 ‘이득과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인생’이라는 윤리관을 갖고 있을 터다.

이렇듯 철학은 세계와 삶에 대한 가치관을 근본에서부터 살펴보며 가다듬는 학문이다. 철학 분야의 하위 분류만 봐도 철학의 뿌리와 줄기, 열매가 튼실하게 드러난다. 여기에 《논어》, 《장자》 같은 철학의 고전을 다루는 경학(140), 공자와 맹자 같은 동양철학자들(150),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서양철학자(160)들을 걸가지처럼 곳곳에 펼쳐

보여준다. 그러니 앞에서 소개한, 철학이 던지는 깊고 근본적인 물음을 가슴에 품고 100번대 서가를 거닐어보라. 내 삶을 뿌리에서부터 바꾸어 놓을 새로운 생각과 발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100번대 서가에서 재미를 느끼려면

그러나 나는 도서관이라는 책의 숲을 산책할 때, 100번대 철학 서가부터 살피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땅을 깊숙이 파고들어 가려면 일단 넓게 파야 한다. 좁고 깊게 수직으로 굴을 뚫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내 삶의 의미’와 같은 깊은 물음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다. 철학 서가에 앞서 800번대 문학과 900번대 역사를 먼저 충실하게 살펴보라. 문학은 이야기다. 그리고 불끈거리는 감정을 다룬다.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건조한 논리와 논증보다 훨씬 재미있는 법이다. 인문학을 흔히 문학과 역사와 철학, 즉 문사철(文史哲)이라 한다. 이는 인문학에 접근하는 순서이기도 하다. 철학보다는 역사와 문학이 접근하기 쉽다는 의미다. 문학과 역사 또한 삶과 세상의 본질과 의미를 다룬다. 문학과 역사를 통해 인문학이 던지는 문제의식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면, 철학의 정교하고 냉철한 작업을 제대로 따라갈 만큼 지적 체력이 한껏 자라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00번대 철학 서가를 거니는 지적 산책자들에게 도움말을 드리고 싶다. 철학은 다독(多讀)보다 다상량(多想量)이 중요한 분야이다. 이야기로 꾸러진 소설이나 영화와 달리, 정교한 논리를 쫓아야 하는 철학 분야는 수학이나 과학책을 읽을 때만큼이나 한 페이지마다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많이 읽으려 하기보다 제대로 한 권을 읽겠다는 다짐으로 100번대 서가에서 책을 고르셨으면 한다. ❶



안광복

서울 중동고등학교 철학 교사이자 철학박사로 《처음 읽는 현대 철학》, 《도서관 옆 철학카페》 등 10여 권이 넘는 대중 철학서를 쓴 작가이기도 하다. 주말은 온통 남산도서관과 정독도서관에서 보내는 도서관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

- 14 **사서 큐레이션**
도서관 실감 콘텐츠로 만나는 한국의 고전문학
- 18 **오늘의 만남**
“문학은 최고로 세련된 언어로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장 문정희
-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생명애(愛)로 초등 독서교육 심.폐.소.생.
‘대전석교초등학교 도서관’
- 26 **보물을 찾아서**
인도를 대표하는 지식인 ‘타고르’와
인도국립도서관
- 30 **도서관 트렌드**
Born Digital 세대와 독서,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을 만나다

도서관 실감 콘텐츠로 만나는 한국의 고전문학

국립중앙도서관은 현대적인 디지털 기술과 한국의 고전문학을 결합한 새로운 실감형 체험공간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을 2023년 10월 16일 개관하고 ‘K-문학의 재발견’, ‘작가와 만남’을 운영 중이다. 도서관 본관 1층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에서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한 정철의 <관동별곡>과 딥페이크 기술로 살아난 작가 이상을 만나보자.

정리 최진규 사진·자료제공 국립중앙도서관

K-문학의 재발견



한국 고전문학을 현대적인 감각의 일러스트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실감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한 <관동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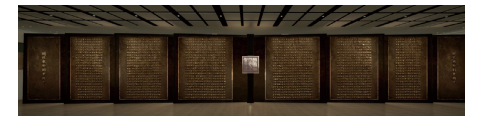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이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된 해(1580년) 금강산과 관동팔경의 산수와 풍경, 유적과 풍속 등에 대한 감회를 활달하고 호방하게 노래한 국한문 혼용 유람 기행가사이다. 자연 예찬, 애민 정신, 인생무상 등을 관찰자 시점에서 잘 표현해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꼽힌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정철의 시조와 가사를 수록한 시가집 《송강가사(松江歌辭)》의 관서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K-문학의 재발견’ 첫 번째 콘텐츠인 <관동별곡>은 관서본을 바탕으로 원작에 기술된 금강산과 관동팔경의 주요 장소를 소재로 작가의 심경과 소회를 미디어아트로 재탄생시켰다. 관람객은 작가의 여정을 따라 서사, 본사, 결사의 여덟 개 장면으로 나누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관동별곡>의 산수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철현금의 대가인 류경화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테마곡은 서정적 감성과 풍류적 분위기를 더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도서관 공간 특성상 테마곡이 함께 재생되는 상영 모드는 1일 2회(10:30/15:30) 실시하며, 그 외 시간은 미디어아트 상시 모드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① 한양(서울) → 평구역(양주) → 흑수(여주) → ② 섬강·치악산(원주) → 소양강(춘천) → 동주(철원) → 회양(강원도 동북쪽) → ③④⑤ 금강산 → ⑥ 총석정(통천) → 삼일포(고성) → 청간정(간성) → 낙산사(양양) → 경포대(강릉) → 죽서루(삼척) → ⑦ 망양정(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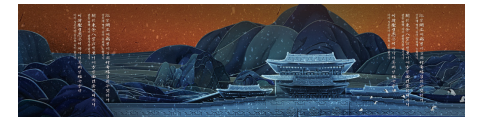
인트로



수장고에 보존된 <관동별곡>을 거대한 동판에 새김. 천장엔 단청이 나타나고, 기둥에 청사초롱이 켜지며 영상 시작

[서사]

① 경복궁



한양의 경복궁을 배경으로 정철이 관찰사로 임명된 후 떠나는 심정 표현. 경복궁 주변 산과 강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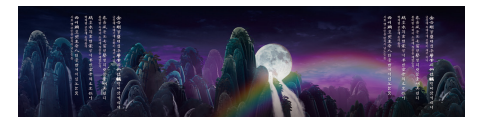
[본사]

② 섬강과 치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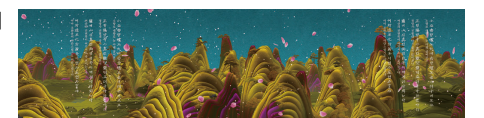
섬강의 거센 물줄기와 치악산의 산세(山勢) 등을 표현

③ 만폭동 폭포



만월(滿月)이 녹아내린 만폭동 폭포라는 가상의 설정과 폭포 옆 무지개로 신비한 절경을 그려냄

④ 금강산 봉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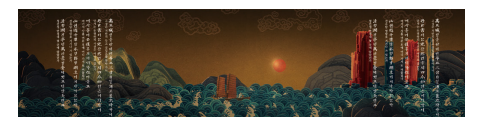
사계절에 따라 생동감 있게 변화하는 금강산 봉우리의 산세(山勢)를 표현

⑤ 비로봉, 금강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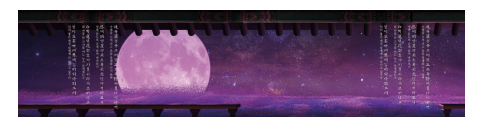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의 전경을 현대적 산수화로 표현

⑥ 총석정



일출의 변화에 따라 수정처럼 빛나는 총석정의 모습을 신비롭게 형상화함

⑦ 망양정



망양정 안에서 본 동해의 월출을 작가의 시점으로 나타냄

[결사]

⑧ 밤하늘



달이 있는 밤하늘 풍경과 은하수, 별들의 움직임을 묘사

작가와와의 만남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딥페이크 기술로 살아난 '이상'과의 생생한 만남

‘작가와와의 만남’에서는 음악,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적 사고를 했던 예술가로서의 이상(1910~1937)을 만날 수 있다. ‘이상과의 대화’는 이상이 관람객에게 대화를 건네는 콘셉트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작가의 작품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보고/읽는 디지털북’과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은 그가 주로 생활했던 제비다방, 건축기사실, 경성 거리 등을 배경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살아 있는 듯한 이상과 함께 그의 삶과 작품세계를 생생히 만날 수 있다. 또한 이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열의와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관람을 마친 후에는 이상이 활동했던 공간을 배경으로 작가와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는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열린마당 실감체험관」 딥페이크 기술로 탄생한 ‘이상과의 대화’

공간 전체를 미디어 캔버스로 활용한 차별화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실감서재」(2021년), 「지식의 길」(2022년)과 같은 신기술 융합 도서관형 특화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2023년 10월에 공개된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형 조형물 ‘지식의 물결’을 비롯하여 벽체, 기둥, 천장 등 약 300평(994m², 천고 6.3m) 규모의 공간 전체를 대형 미디어 캔버스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적인 선, 색채, 문양을 고전문화와 결합함으로써 생동감 있게 작가와 작품을 재해석해 보여주었다는 점이 기존 콘텐츠와 차별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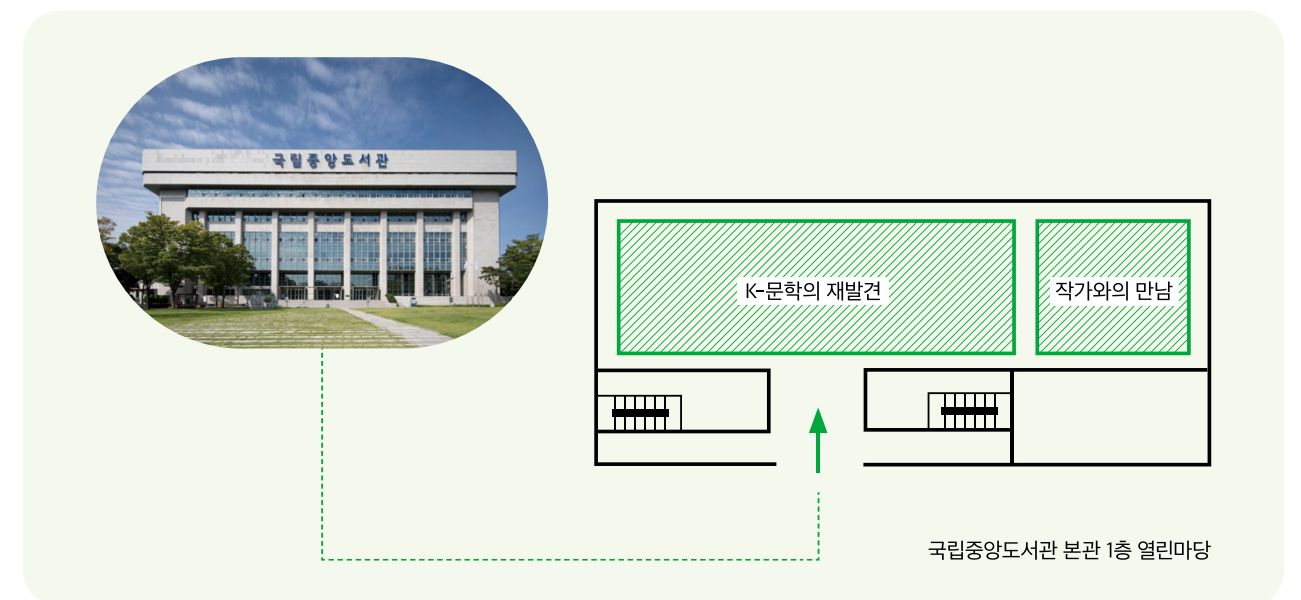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은 당일 현장 예약 또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실감서재」, 「지식의 길」,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해설이 있는 K-컬처)은 1일 4회(10:00/13:30/15:00/16:30)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㉞

국립중앙도서관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은?

운영시간	월~일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휴관일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공서의 공휴일
전시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열린마당’
관람료	무료
입장안내	(국립중앙도서관 회원) 도서관 이용증(1일/정기/모바일) 발급 후 관람 가능 (국립중앙도서관 비회원 및 미성년자) 당일 현장 예약 또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 예약 후 관람 가능
유의사항	- 콘텐츠 상영 모드 재생 시 체험관 내부가 어두우니 안전에 유의 바람 -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가능하나, 삼각대·플래시는 사용할 수 없음 - 16세 미만 관람자는 보호자 동반 입장 가능
문의	02-3456-6169



상영 정보 및 예약 페이지
자세히 보기





“문학은 최고로 세련된 언어로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장 문정희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한국문학관이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본 기관은 2019년에 출범했으나 아직까지 몸을 누일 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감사하게도 올해 3월, 서울 은평구에서 첫 삽을 뜨는 것을 계기로 건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관장으로서 문정희 시인이 그 여정을 이끌고 있다. 그녀는 2년 후 만나게 될 문학관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진행 이해민 사진 안호성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여 년 동안 시를 썼던 사람으로 현재 국립한국문학관장을 맡고 있는 문정희입니다.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의 출범 이후 2022년 국립한국문학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문학관을 국립이라는 이름 하에 세우는 문학관입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더 일찍 문학관이 세워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동안 경제·정치 발전을 하다 보니 문학관 건립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학인으로서 지금이라도 국립한국문학관이 세워진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인이 한국어로 남긴 국내외 모든 문학의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복원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그것을 미래 세대에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26년 국립한국문학관의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학계의 숙원사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태가 궁금합니다.

2019년 2월에 처음으로 건립 기본계획이 세워졌고, 여러 가지 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3월 드디어 첫 삽을 뜹니다. 그 후부터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모두가 바랐던 아름다운 문학의 공간이 탄생할 예정인데요. 현재 우리 한국문학이 가진 본질적 정신이나 특징에 맞게 많은 부대 설계와 실내 장치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후면 명실공히 ‘국립’이라는 말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문학관이 건립될 것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건립 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곳에서 즐겁게 문학을 향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을 통해 우리 한국문학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국립한국문학관이 출범한 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국립한국문학관이 아직 개관은 하지 않았지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올해로 만 4년째입니다. 그사이에 이미 수집한 자료만 하더라도 10만 점이 넘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어서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은 국립세종도서관 수장고에서 보관 중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 출범 이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한국문학 자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래된 어떤 시인의 시집 한 권, 소설가의 소설 한 편마저도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서 현재도 많은 분들이 국립한국문학관에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고 계십니다. 평생을 교수로 강의하며 모아온, 가치로는 100억 원 이상(추정)의 자료를 쾌척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해외에서도 꾸준히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매일 꿈과 희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정희 •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정치용문학상, 이육사문학상, 청마문학상, 목월문학상, 이육사문학상, 공초문학상, 김동명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마케도니아 테토보 세계문학 포럼에서 올해의 시인상,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 스웨덴 하뤼 마르틴손 재단이 수여하는 시카다(Cikada)상, 삼성행복대상 여성창조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세계 11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15권의 번역시집이 있다. 현재 국립한국문학관장으로 고려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를 역임하고,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수집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오랜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위대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기준이 바로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예술은 시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대에는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지 못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재평가되기도 하죠. 기존의 평범한 작가가 위대한 작가로 주목받기도 하고, 작품도 재평가되어 위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장고에는 현재까지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은 작품들은 물론이고요. 근대나 현대문학에 대해서는 평가를 보류하면서 여유를 둘 예정입니다. 어디까지나 평가는 시간의 잣대에 두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1969년 그 당시 새로 창간된 《월간문학》에서 주목받는 신인으로 등단하신 후 50년이 넘게 문학계에 계셨습니다. 한국 대표 시인으로서 어떻게 오랜 시간 영감을 얻고 작품활동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게 시적 영감에 대해 묻곤 하시는데, 저는 영감이라는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영감은 없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대개 시인 하면, 갑자기 영감이 툭 떠올라서 길을 가다가도 멈추고 시를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시를 쓰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등단한 후에는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메모한 적은 있지만 어느 날 영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너한테 이 구절을 주노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1%의 영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 영감이란 1%의 재능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저 나는 쓴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흔히 시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독자의 입장에서 저는 시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나 시인의 입장에서는 쓰면 쓸수록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장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만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가장 고도한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란 언어 몇 구절에 모든 영혼과 삶을 다 표현하면서도 가락, 운율이 있어야 하니까요. 또 요즘 현대사회를 시를 상실한 사회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는 건재할뿐더러 대중가요나 광고 문구, 영화의 대사 구절 등 다른 형태로 스며들어 여전히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등 도서관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도서관은 뉴욕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용했던 뉴욕대학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제 뉴욕 생활의 주무대는 여러 공공도서관이었어요. 제 삶을 책에 의지하고 숨을 쉰 곳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동네 도서관과 국립도서관 등을 많이 찾고 활용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지역 주민의 삶과 도서관이 서로 밀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많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서관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한국문학관이 특별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전시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국립한국문학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함께 3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이고요. 테마는 '문학의 봄X봄(SpringXSeeing in Literature)'이에요. 우리 한국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봄 이야기가 전시 주제인데요. 봄이라고 하면 계절의 '봄'도 있지만 눈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작품이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김유정 단편소설 〈봄봄〉, 이장희의 시 〈봄은 고양이로다〉처럼 '봄'을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은 물론이고요. 전시 공간에는 봄 향기도 뿜어져 나올 예정입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봄 처녀 제 오시네~'와 같이 친근한 노래도 함께 들으며 봄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봄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느끼고 즐기고 눈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국립한국문학관장으로서, 시인으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기증 의사를 밝혀주시는 문인 및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귀중품도 많습니다. 문학관은 건립 전이지만 다양한 곳에서 미리 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학관 건립 후에는 더 많은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인 문정희로서는 올해에 새 시집을 낼 예정입니다. 관장직을 맡으며 혹시 읽고 쓰는 삶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뜻밖에도 귀한 자료를 볼 때마다 받은 전율, 문학의 위대함에 대한 자극들로 하여금 오히려 시 창작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❶



아름다운 곳

문정희

봄이라고 해서 사실은
새로 난 것 한 가지도 없다
어디인가 깊고 먼 곳을 다녀온
모두가 낯익은 작년 것들이다

우리가 날마다 작고 슬픈 밥술에다
쌀을 씻어 행구고 있는 사이
보아라, 죽어서 땅에 떨어진
저 가느다란 풀잎에
푸르고 생생한 기적이 돌아왔다

창백한 고목나무에도
일제히 눈 펴 같은 빗꽃들이 피었다
누구의 손이 쓰다듬었을까
어디를 다녀와야 다시 봄이 될까
나도 그곳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애(愛)로 초등 독서교육 심.폐.소.생. ‘대전석교초등학교 도서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꾸며진 도서관 내부

최근 2~3년간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 ‘환경교육’이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까지 알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전석교초등학교 도서관의 이순희 사서교사는 ‘생명애’를 테마로 이름하여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아이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취재 구자영 글 이혜민 사진 조혜원

대전석교초등학교 도서관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04번길 12
(석교동)

전화번호 042-271-6101(내선 412)

아이들의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서교사

독서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강조되어 오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내 도서관을 운영하며 정규 교육과 독서교육을 병행하고자 노력한다. 사서교사가 상주하는 것은 물론 사서교사의 재량에 따라 독서 프로그램의 성과가 좌우되기도 한다.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이라는 특성상 도서관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독서 프로그램 및 행사, 그리고 때에 따라 정규수업도 맡아서 실시한다.

대전석교초등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이순희 사서교사도 새 학기 준비 기간 동안 2023년에 진행할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생명애’를 떠올렸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생명을 테마로 전 학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수업을 실시하고 싶었어요.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 또한 테마로 엮어서 시도해 보고 싶었고요. 이를 통해 수업 및 독서교육 전 영역에 걸쳐 ‘생명애’로 흘러넘치는 학교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생명♥사랑 독서 챌린지의 미션지와 생명애 테마 도서 별치 서가 모습

이제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 때

이순희 사서교사가 생명과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시릴 디옹·피에르 라비 지음, 한울림 어린이)이라는 책의 짧은 글귀 때문이었다. 어느 날 산에 큰불이 났고, 동물들은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나 작은 벌새 한 마리는 홀로 숲에 물을 뿌리며 불을 끄려고 노력했다. 지켜보던 다른 동물들은 벌새에게 물 몇 모금으로 불을 끌 수 없다고 말했지만, 벌새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도 알아,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라고 말이다. 이순희 사서교사는 이 글을 읽고 하루라도 빨리 ‘작은 벌새’들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빠졌다고 한다. 그렇게 생명애를 바탕으로 하는 대전석교초등학교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심.폐.소.생.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 기획은 국립중앙도서관이 2023년 개최한 ‘제17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사서선생님의 추천 도서

전 학년이 단계별로 완성하는 사고의 내면화

‘심.폐.소.생’은 독서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핵심 단어에서 따온 이름이다. 테마를 심고, 각 학년별 수업 패턴을 가지며, 생명에 대한 소양을 쌓아, 생명과 공존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독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생명 및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이순희 사서교사는 이를 위해 전문가의 강연 영상부터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섭렵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식물, 자연과 생명의 순환, 동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가 거미줄처럼 한데 묶여서 생명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이들에게 깊이 내면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순희 사서교사는 각 학년별로 부여받은 수업 시간에 따라 수업 내용을 기획했다. 학생들의 발달 시기나 관심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배치한 것이다. 먼저 저학년인 1~2학년에게는 식물, 가족, 날씨 등을 주제로 하는 독서 활동을 통해 주변의 가장 가까운 존재를 인식하도록 했다. 3~4학년을 대상으로는 동물을 주제로 생명 존중을 일깨울 수 있는 수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5~6학년은 본 프로그램의 핵심이기도 한 지구와 환경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등, 주제를 학년별로 확장해 나갔다. 물론 모든 수업에는 주제와 관련한 도서 읽기가 바탕이 되었으며 책 제목 찾기, 관련 노래 듣기, 책 만들기 등과 같은 파생 활동이 뒷받침되었다. 이순희 사서교사는 본 프로그램을 3년 정도 장기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대전석교초등학교에 꾸준히 재학하는 학생이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학습 내용이 누적되어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릴레이 책읽기 독서 활동을 진행한 대전석교초등학교

독서를 바탕으로 함께 작은 별새가 되다

이순희 사서교사는 수업 시간에 진행한 주요 활동 외에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했다. 교내 독서 동아리 활동, 온라인 독서 클럽, 그림책 인형극, 작가와의 만남 등을 주관한 것이다. 모든 활동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장교감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예산 확보 및 실질적 지원이 있어 프로그램은 풍성해졌고, 아이들의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아이들은 미션을 통한 성취 유도나 맞춤형 선물을 좋아해요. 이때 학년별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고, 주제와 시기, 대상을 고려해 연계 선물을 선별해 제공했습니다.” 이순희 사서교사가 아이들에게 제공한 선물은 다양했다. 친환경 재료로 만든 파우치나

씨앗 모양 볼펜, 작가와의 만남에서 제공한 책과 굿즈 등이었다. 덕분에 그녀의 독서 프로그램을 경험한 아이들은 사서교사와 함께하는 수업이 즐겁고 특별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 준 아이들이 많다 보니 이순희 사서교사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올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이들과 진행한 책 만들기 활동 모습

이순희 사서교사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환경’이라는 주제를 독서를 통해 인식시켜 주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작은 별새’가 되기를 자처했고, 이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덕분에 아이들에게도 작게나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먼 훗날 대전석교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만큼은 우리 지구를 살리는 작은 별새의 몸짓을 기꺼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뜨거운 믿음이 생긴다. ❷



생태 작가님과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



‘생명에 심.폐.소.생. 프로젝트’ 담당 이순희 사서교사

“처음 수상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기뻐요. ‘심.폐.소.생. 프로젝트’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서교사로서 근무한 지 올해로 19년 차가 됐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그간의 경험들이 모두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는 아이들이 자라서 ‘책’을 떠올릴 때, 사서 선생님에 대한 ‘사랑’도 연결 지어 떠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올 한 해도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지식인 ‘타고르’와 인도국립도서관



인도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India)은 수도 뉴델리가 아닌 인도 동쪽의 후글리(Hooghly) 강변에 위치한 하향 도시 콜카타(Kolkata, 옛 지명 캘커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델리가 영령 인도의 새로운 수도로 발표되는 1911년 12월 12일 이전까지 캘커타가 수도였던 시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식민 통치의 편의를 위한 각종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47년 독립 이후부터는 인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되는 인도에 관한 모든 지식을 넣어두는 보물 창고로 변모했다.

글 신민하(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객원강의교수) 사진 위키피디아

영국인 총독이 주도하여 설립한 제국도서관

인도국립도서관은 1900년 이전 캘커타에 존재하고 있던 몇몇 도서관이 통합된 것이 그 기원이다. 그리고 1947년 인도 독립 이전까지 그 명칭은 제국도서관(Imperial Library)이었다. 1903년 1월 30일 개관한 제국도서관은 당시 영령 인도의 총독이었던 조지 너새니얼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커즌은 1836년 개관한 캘커타공공도서관(Calcutta Public Library)을 1891년 설립된 공식제국도서관(Official Imperial Library) 및 식민 정부의 여러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던 소규모 도서관들과 통합시키고자 했다.

커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02년 제국도서관법(Imperial Library Act)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탄생하게 된 제국도서관은 전 총독들이 관저로 사용했던 캘커타 알리포르(Alipore) 지역에 위치한 벨베데레 하우스(Belvedere House)에 동지를 틀었고, 개관 이후 4년에 걸쳐 자료 이전 작업이 진행되었다.

인도 독립과 인도국립도서관의 개관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독립하면서 제국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다. 이듬해인 1948년 오랜 기간 사서로 활동했던 인도인 벨라리 샤만나 케사반(Bellary Shamanna Kesavan)이 도서관 총책임자로 임명되었고, 5년 남짓 준비 기간을 거쳐 1953년 2월 1일 당시 인도 정부 교육부 장관이었던 마울라나 아불 칼람 아자드(Maulana Abul Kalam Azad)의 공식 발표로 인도국립도서관이 공식적으로 개관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시기별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도국립도서관의 기존 상황 및 기능, 향후 발전 방안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1968년 5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969년 7월 14일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출판된 인도에 관한 도서와 저널’, ‘인도인이 해외에서 출판한 도서(요약본 포함)’ 등을 자료수집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에 띈다. 인도국립도서관이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인도에 관한 모든 지식’을 수집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인도국립도서관 @2024 Ministry of Culture, Government of India

숫자로 살펴보는 인도국립도서관의 이모저모

인도국립도서관은 인도에서 사용되는 15개 주요 언어로 작성된 자료들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체의 크기와 맞먹는 면적을 가진 인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1963년 신설된 ‘(15개) 인도언어부서(Indian Language Divisions)’가 각 언어를 대표하는 자료들을 선별 및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도국립도서관이 위치한 콜카타를 중심으로 하는 웨스트 벵갈(West Bengal)의 지역 언어인 벵갈어 자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먼저 인도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도서 및 정간물(264만 1,615권), 지도(8만 8,162종), 필사본(3,231종), 마이크로 필름(10만 4,388롤), 905종 신문 제본(1만 1,000권), 저널 제본(14만 7,331권) 등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475~1700년 사이 발간된 영어 자료 12만 5,000종, 전 세계 88개국에서 발간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전문 380만 편도 포함되어 있다.

인도의 보물,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원고 초판본

인도국립도서관이 보유한 수많은 자료 중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희귀 자료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1913년 비서양인이자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의 초창기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중 190권은 모두 초판본이다.

타고르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은 시집 《기탄잘리》이다. 그는 인도 내에서 저명한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8세에 처음 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안이 부유했던 타고르는 가족의 자산 관리를 하며 시, 희곡, 단편소설 등을 써 내려갔다. 또한 인도 국민, 특히 농민 계몽을 위해 사비로 학교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친 사상가로도 유명하다. 교육 및 농업 분야의 개혁을 선도하던 그였지만, 수년 사이 아내, 자녀, 부친의 연이은 사망으로 그는 깊은 시련에 빠지기도 했다.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겹치자 그는 평생 써왔던 저서의 판권을 헐값에 출판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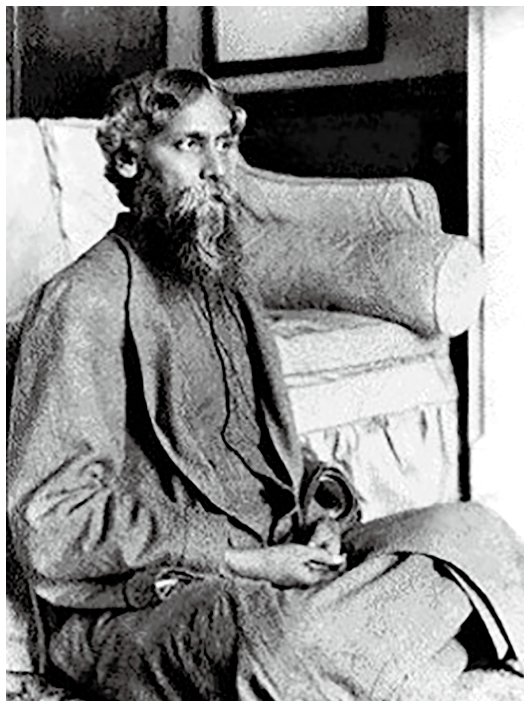
넘기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시집 《기탄잘리》는 그 시기에 써 내려간 작품들이다.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의 《기탄잘리》에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시로 표현한 작품이 실려 있다. 그의 시는 고전적 형식을 버리고 벵골 예술을 현대화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에 관한 모든 지식을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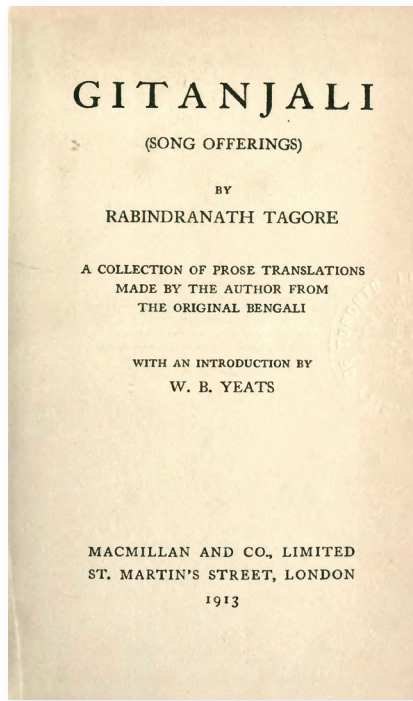
한편 ‘도서관 속의 도서관’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인도국립도서관이 개관할 당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민족주의운동 지도자, 법률가, 작가, 학자 등의 후손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기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자료들은 해당 인물의 이름을 딴 인도국립도서관 내 별도 공간에 보존되어 있다. 또한 최근 인도국립도서관은 온라인 서비스를 보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유 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를 꼭 한 번 방문해 보시길 바란다. ❶



인도국립도서관 @2024 Ministry of Culture, Government of India



1912년 영국 방문 중의 타고르



타고르의 산문시집 《기탄잘리》

인도국립도서관은?

도서관명(영문)	인도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India)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일요일 및 인도 국경일 휴무)
주소	Belvedere Rd, Alipore, Kolkata, West Bengal 700027, India
홈페이지	www.nationallibrary.gov.in

신민하 •

인도 국립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 역사학센터(Centre for Historical Studies)에서 인도 경제단체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2014~2018), HK연구교수(2018~2023)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인도학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인도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그간 인도 경제단체의 설립과 발전, 국가 상징 제정, 식민지 도시의 형성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공저를 썼다.



Born Digital 세대와 독서,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

Born Digital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후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에게는 소셜미디어나 AI(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의존도도 이전 세대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독서와 도서관에도 새로운 문화적 개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의 모습도 점차 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글 이지옥 사진 각 도서관

*Born Digital 세대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였던 이들을 말한다. 흔히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Z세대와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Alpha) 세대를 포함한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독서

Born Digital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독서 형태이다. 이들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읽는 전자책에 익숙하다. 또한 읽고 싶은 '희망 도서'를 바로바로 대출할 수 있는 '희망 도서 바로대출 서비스(공공도서관과 지역 서점의 연계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도서관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전자책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전자책은 소장된 권수에 따른 대출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예약 대기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대출 인원수의 제한이 없어 이용자들은 수요가 높은 신간 도서나 베스트셀러 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광역시의 대덕구 신탄진도서관과 한밭도서관에서는 협력 서점에서 새 책을 대출할 수 있는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도 자체적으로 희망 도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신청한 희망 도서가 도서관 장서로 등록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협력 지역 서점에서 희망 도서(신청 제외 도서 미포함)의 대출과 반납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공공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도서관 누리집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점에서 대출된 이력이 있는 도서는 추후 도서관에 소장된다. 이는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지역 거점 서점을 돕는 일석이조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도 실시하는 곳이 많으며, 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 여부를 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있는 서점에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도 해당 서점이나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Born Digital 세대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대전도서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의정부미술도서관



김제시립도서관의 이용자 맞춤형 도서 추천 키오스크

SNS를 활용한 독서 인증

언론과 각종 통계 지표에서는 독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독서 권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Born Digital 세대는 독서를 안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은 책의 표지, 도서관 이용 사진 등을 SNS를 통해 인증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여러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SNS에서 인기 있는 도서관을 찾아 방문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은 SNS상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곳”, “서울 근교 가볼 만한 곳”으로 인기가 많다. 이처럼 Born Digital 세대에게 최신 트렌드에 맞춘 도서관은 인기 있는 카페처럼 가고 싶은 곳이 된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뜻의 인스타그램머블* 한 곳에서 독서하고 인증하는 것 역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향후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많은 도서관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mable)이란?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할 수 있는(-able)’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뜻이다.(출처: Cambridge Dictionary)

AI(인공지능)+빅데이터 네이티브의 독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도 불리는 Born Digital 세대는 AI 플랫폼과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익숙하다. 이 때문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 도서 서비스에 대한 호응도가 높으며, 자신의 독서 취향, 독서 이력을 바탕으로 실패 없는 독서를 하고 싶어 한다.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이용자 맞춤형 도서 추천 키오스크를 도입하였다. 터치스크린에서 연령, 성별, 관심사, 기분 상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키오스크, AI 서비스에 익숙한 세대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도서 추천은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흥미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제 Born Digital 세대에게 독서와 도서관의 의미는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다. 전자책, SNS를 활용한 독서 인증, AI를 활용한 도서 추천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우리 도서관들도 이러한 Born Digital 세대의 특징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바른 SNS, AI 플랫폼에 대한 활용법을 함께 안내하는 것도 도서관이 가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❶

이지옥 ·

현재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사서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대학신문》을 비롯해 다수의 매체에서 도서관에 대한 칼럼을 연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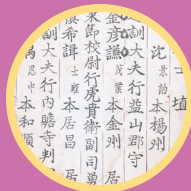
34 문헌의 가치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 방목(榜目)

38 문학상 읽기
로맹 가리 《자기 앞의 생》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살 수 없다

42 나를 바꾸는 독서
마크 피셔, 《자본주의 리얼리즘: 대안은 없는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인 시대의 감각

46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3월, 설렘 가득한 봄맞이 인기 도서는?
‘최근 3년간 3월 인기 급상승 도서 분석’

48 똑똑한 독서 생활
두꺼운 철학책도 어렵지 않도록
철학책을 읽기 위한 세 단계



서재를 견다

榜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 방목(榜目)

고문헌 구입 업무를 맡고 있는 필자는 2023년 전래가 드문 희귀한 고서를 구입하였다. 《갑자년생원진사방목(甲子年生員進士榜目)》이 그것인데 이는 갑자년, 즉 연산군 10년인 1504년에 치른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합격자 명단을 실은 ‘사마방목(司馬榜目)’이었다. 조선시대 생원진사시는 230차례 치러졌고 그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도 상당수 전해지고 있지만,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 초반에 간행된 방목은 흔치 않다. 이 책의 가치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과 합격자 명단인 방목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글 안혜경(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시대 과거 시험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에 처음 실시되어 조선시대에 독자적인 모습을 갖춘 인재 선발 제도이다. 과거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르는 식년시(式年試) 외에도 큰 경사나 작은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증광시(增廣試)와 별시(別試), 궁궐을 개방하거나 왕의 문묘 행차를 계기로 치르는 정시(庭試), 알성시(謁聖試) 등의 비정기 시험이 있었다. 과거 시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관료 선발을 위한 문과(文科), 무관 선발을 위한 무과(武科), 의(醫)·역(譯)·음양(陰陽)·율(律) 등 기술 관원 선발을 위한 잡과(雜科)가 그것이다. 또한 관직자를 선발하는 시험은 아니나 상당수의 유생이 대거 응시했던 과거로서 생원진사시가 있다.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 불리는 이 시험에 합격한 유생은 성균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 천거를 받아 공직에 나아갈 수도 있었다. 이번에 다루는 방목은 생원진사시의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이므로 이 시험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다.

정기적으로 치르는 생원진사시는 3년마다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누어 각각 두 차례 시험을 시행하였다. 1차로 전년도 가을(8월)에 각 지방에서 초시(初試)를 보고, 2차는 초시에 급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해 봄(2월)에 한양에서 복시(覆試)를 치른다. 생원이 되려면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외워야 하고, 진사가 되려면 시부(詩賦)를 잘 지어야 하는데, 진사시를 먼저 시행하고 하루걸러 생원시를 치렀기에 두 시험에 동시에 붙는 양시(陽試) 합격이 종종 나오기도 하였다. 바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는 양반 지식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

합격자 명단, 방목

과거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출방(出榜)이라 하여 특정 장소에 방을 붙여 공개하였고, 이후 합격자 명단을 책자로 간행하였는데 이를 방목이라 하였다. 방목의 내용은 권수에 은문(恩門)이라 하여 시험 장소와 시험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합격자 본인 및 가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원방(原榜)으로 구성된다. 후대로 가면 통계적인 내용과 시험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은 부록이 추가되기도 한다.

방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방에는 합격자의 명단을 성적으로 기록한다. 본인에 관한 사항으로는 응시 당시의 신분과 이름, 자(字), 본관, 거주지를 기재하며, 가족 사항으로 아버지의 관직과 이름을 적는다. 16세기 중반부터 출생 연도, 부모의 생존 여부와 형제의 이름까지 적는 경향을 보이며, 후대로 갈수록 시험 문제 등 수록하는 내용이 풍부해진다.

실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로 방목의 기재 정보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다. 1528년(중종 23)에 치른 생원진사시 합격자 명단인 《무자사마방목》에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이름이, 2등 10번째 명단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幼學 李滉 景浩 本眞實 居禮安

유학 이황의 자는 경호, 본관은 진보, 거주지는 예안

父成均進士埴

아버지는 성균진사 식



- 1 《가정사십삼년갑자칠월이십일사마방목》(古朝26-29-1) 표지
- 2 《무자사마방목》(古6024-222) 표지
- 3 《갑자년생원진사방목》(古6024-243) 표지
- 4 《무자사마방목》(古6024-222)



5

반면 1564년(명종 19)에 치른 생원시에서 장원급제 한 울곡(栗谷) 이이(李珣)의 정보를 《가정사십삼년갑자칠월이십일사마방목》에서 살펴보자.

幼學李珣^(叔獻 丙申) 本德水 居京^(聯璧)
유학 이이의 자는 숙헌, 병신년 출생이며 본관은 덕수, 거주지는 서울, 형제 동시 합격
父通德郎行宗簿寺主簿 元秀 永感下 鴈行^(兄璿 璿弟璿 璿弟璿)
아버지는 통덕랑행종부시주부 원수이며 부모 모두 돌아가심. 형제는 형 선과 번, 아우 위(후로 개명)

이이가 태어난 1536년(중종 31)의 간지(干支)가 추가되었고, 거주지 다음에 연벽(聯璧)이라는 정보도 보인다. 이는 이이의 형인 이선(李璿)도 같은 시험에서 37등으로 합격하였기에 형제가 동시에 합격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관직과 이름에 더하여 부모의 생존 여부 정보와 형제의 이름까지 추가된 것이다.

1504년 치른 생원진사시의 사마방목

이제 최근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한 1504년(연산군 10)의 생원진사시 합격자 명단인 《갑자년생원진사방목(甲子年生員進士榜目)》을 살펴보겠다. 명단은 각각 1등 5명, 2등 25명, 3등 75명으로

5 《가정사십삼년갑자칠월이십일사마방목》(古朝26-29-1)



6

나누어 총 100명씩 모두 200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1511년(중종 6)경 도서관(校書館)에서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하였다. 본문의 장수는 22장, 책의 크기는 세로 22.5cm, 가로 17.6cm로 B5 크기보다 작으며, 표제는 ‘司馬榜目(사마방목)’이라 묵서(墨書)되어 있다.

권수에 보이는 시험 정보에 따르면 시험은 두 군데로 나뉘어 시행되었고, 시험감독관에는 이조판서 김수동(金壽童) 등 6명과 형조판서 송질(宋軼) 등 6명이 각각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목의 기재 내용은 합격자의 전력(前歷)과 이름, 자, 거주지, 아버지의 관직과 이름 정도로 출생 연도나 본관, 부모의 생존 여부 및 형제 정보 등이 빠져 있어 앞서 소개한 방목들의 내용보다는 소략하다.

그러면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자. 생원시 장원은 유학 유예신(柳禮臣)이며, 진사시 장원은 유학 정백봉(鄭百朋)이다. 유예신은 6년 후인 1510년(중종 5)에 치른 문과에서 33명 중 17등으로 급제하여 이후 정5품인 병조정랑(兵曹正郎)까지 오른다. 생원시에도 동시 합격한 진사시 장원 정백봉은 그 해 치른 문과 별시에서 19명 중 2등으로 급제하였고, 이후 형조에서 으뜸 벼슬인 정2품 형조판서까지 올랐다.

박수량(朴遂良)의 경우 생원시와 진사시 양시 모두 1등 네 번째로 합격하였으나 모친상을 당한 뒤 과거에 응하지 않았고, 천거로 1년여 관직 생활만 하였다. 이후 그의 효행을 기리고자 효자 정문이 세워졌다. 반면 양시 합격한 윤인경(尹仁鏡)은 2년 뒤 문과급제하고 40년의 관직 생활을 거쳐 의정부 최고 자리인 정1품 영의정에까지 올라 국정을 총괄하였다.



7

방목의 간행은 시기마다 다르지만 주로 합격자 동기들이 편찬하여 도서관에서 인출하거나 합격자가 지방관으로 나가 있을 때 해당 지역에서 간행하였고, 후대로 가면 후손들이 제작하여 민간에서 간행,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 방목은 발문이 없지만 권말에 “正德六年 辛未七月十七日 三清洞榜會 分榜目所掌 韓昌之”라 묵서되어 있다. 창지(昌之)는 진사시에서 92등을 한 한윤창(韓胤昌)의 자(字)이므로 1511년 한윤창이 삼청동 합격자 모임에서 방목의 편찬에 관여하였고, 이 시기에 도서관에서 금속활자로 방목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필자의 학창 시절에는 대학의 합격자 명단을 학내 대자보로 붙여 공개하거나 국가고시 합격자 명단을 신문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경우 수험번호만 공개하여 더 이상 이름으로 확인할 수는 없게 되었다.

방목은 단순한 명부가 아니라 합격자의 신상과 시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인물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성씨별 합격자 실태나 과거제도의 운용, 양반 사족들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㉓

참고 문헌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집문당, 1997)
원창애·박현순 외,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박현순, 〈조선시대 科擧 榜目の 편찬과 간행〉《한국문화》 8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로맹 가리 《자기 앞의 생》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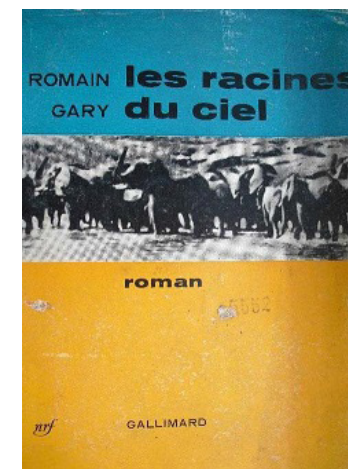
Romain

이 소설은 프랑스 빈민가 창녀촌에서 실수로 낳은 아이들을 길러주는
중년 여성과 그녀의 손에서 자란 모모라는 열네 살 소년이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별하는 내용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슬프고도
아름답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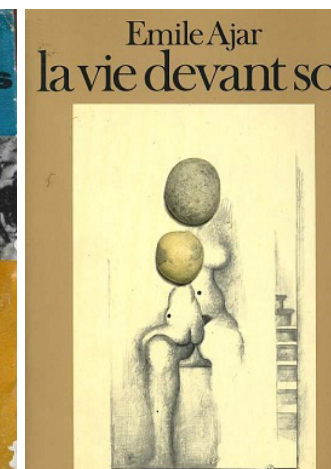
글 황정산(시인·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위키미디어

안주를 거부하는 로맹 가리의 생애

로맹 가리는 1914년 유대계 러시아인으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피해 프랑스 니스로 건너가서 살다가 프랑스에 귀화하였다.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으로도 참전해 프랑스 최고 훈장이라 불리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Ordre National de la Légion d'honneur)을 받은 바 있다. 참전의 경험을 쓴 작품 《유럽의 교육》으로 비평가상을 수상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은 후, 1956년 《하늘의 뿌리》로 공쿠르상*을, 1962년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로 미국에서 최우수 단편상을 수상하였다. 1975년에는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앞의 생》을 발표해 또 한 번 공쿠르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기존의 문학세계를 벗어나 또 다른 문학 영역을 개척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자신을 숨기고 오직 작품으로만 인정받기 위해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한 것이다. 그는 1980년 자신이 에밀 아자르라는 사실을 밝히는 유서를 남기고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해 전 세계 문단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써 그는 한 작가에게 상을 두 번 주지 않는 공쿠르상을 중복 수상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1



2

*공쿠르상이란?

공쿠르상(프랑스어: Prix Goncourt)은 노벨상, 부커상에 이어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에 속한다. 프랑스 작가 에드몽 공쿠르의 유언에 따라 1903년 제정되었으며, 프랑스의 아카데미 공쿠르가 매년 12월 첫 주에 신인작가의 작품 중 가장 우수한 소설 작품을 뽑아 상을 수여한다.

Gary



3

- 1 로맹 가리의 《하늘의 뿌리》
- 2 에밀 아자르(로맹 가리)의 《자기 앞의 생》
- 3 로맹 가리

혈연보다 진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

《자기 앞의 생》은 1970년 파리의 빈민가 창녀촌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무슬림 고아 소년 모모를 주인공으로 한다. 모모는 나치 시절 홀로코스트에서 겨우 살아남아 매춘부로 일했던 유대인 여성 로사에게 맡겨져 자란다. 로사는 다른 매춘부의 아이들을 맡아 길러주는 위탁모를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주인공 소년 모모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로사에게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느낀다. 나이와 종교, 출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로사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 자란 모모는 자신의 눈으로 사회를 보고 타인의 삶과 마주하면서 자신의 삶을 점차 알아간다. 이러한 모모의 시선과 목소리로 소설은 전개된다.

로사와 모모의 관계는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인 사랑을 생각하게 해 준다. 소설의 후반부로 가면 로사는 건강이 악화하여 불치병과 싸운다. 모모는 자신에게 절대적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죽음에 직면함에 따라 사랑의 감정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 더 깊은 그들만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혈연을 넘어서 사랑의 가능성과 혈연관계와는 또 다른 가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모모의 친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모모를 찾아왔을 때 로사가 거짓말로 그를 돌려보낸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모모가 하밀 할아버지에게 묻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소설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한다.

그들은 말했다.
“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나는 대답했다.
“미친 사람들만이 생의 맛을 알 수 있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이 소설의 주제는 앞서 설명한 두 인물 사이의 사랑에만 있지 않다. 그들의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다. 주인공 모모와 로사 역시 사회적 약자로, 모모는 서구 사회에서 핍박받는 무슬림이고 또한 무국적자이다. 이런 그의 처지는 지금도 사회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로사 역시 과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간주되는 매춘부 출신으로 등장한다.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창녀촌에는 많은 사회적 약자가 함께한다. 전직 권투선수이면서 트랜스젠더인 롤라, 옷감 행상 일을 하던 늙은 무슬림 하밀이 바로 이들이다. 사회 주변인인 그들의 삶에 대한 가슴 아픈 묘사를 통해 이 소설은 빈곤이나 인종차별, 이민자 문제를 돌아보게 해 준다. 특히 책에서 주인공이자 화자인 모모는 욕설과 비유가 섞인 독특한 시적 목소리를 내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통해 힘든 환경에서도 사랑을 지키고 희망과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아울러 소설 후반부에서 병든 로사와 함께하는 모모의 이야기는 안락사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며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❶

La 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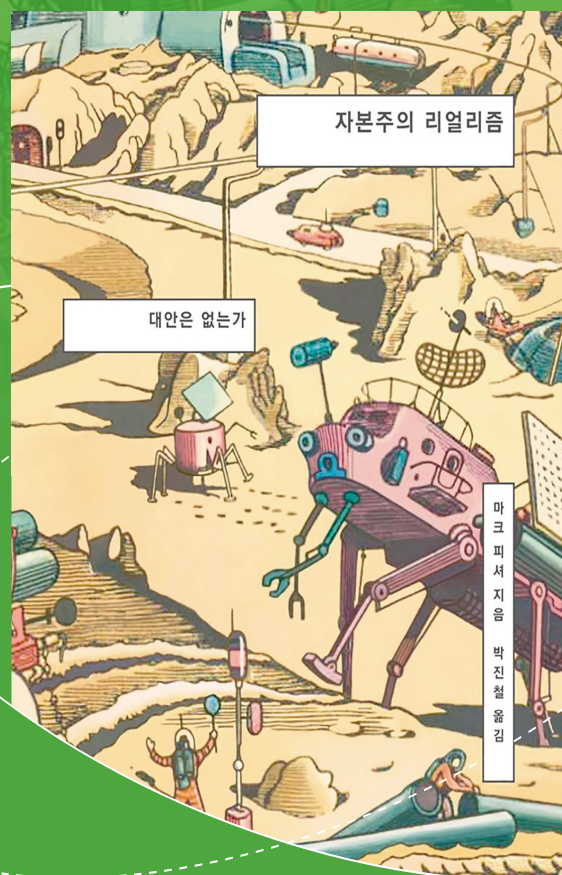


1

황정산 · 1993년 《창작과비평》에서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정신과표현》에 시를 발표했고, 저서로는 《주변에서 글쓰기》, 《쉽게 쓴 문학의 이해》, 《소수자의 시 읽기》 등이 있다. 현재 계간 《상상인》 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1 에밀 아자르(로맹 가리)의 《자기 앞의 생》

마크 피셔, 《자본주의 리얼리즘: 대안은 없는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인 시대의 감각



정신없이 나사를 조이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컨베이어벨트.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허둥지둥 달려가는 찰리 채플린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는 고전 영화 〈모던 타임즈〉의 한 장면이다. 영화를 보지 않은 세대에서도 입소문만으로 회자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관객은 멀리서 그를 보고 웃지만,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그는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래도 집에 도착한 그는 하루 종일 수고한 그 손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

글 김건형(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자본주의의 마음을 리얼하게

《자본주의 리얼리즘: 대안은 없는가》에서 마크 피셔는 자본주의의 경제구조가 경제적 효율성이 나 성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제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지금의 자본주의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스템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감각이라고 말한다. 특히 냉전이란 대결 구도가 붕괴한 1990년대 이후에는 현재의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적 체제나 경제 시스템을 상상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하면서, 이를 유일한 현실로 수용(리얼리즘(Realism)은 현실주의로도 번역된다)하는 사회문화적 현상, 그런 체념이 드러난 작품(예술 사조로서의 리얼리즘)을 소개한다. 그 속에서 우리 시대의 만연한 사고관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고관이 어떻게 현대인의 마음을 장악하는지 분석한다.

비극과 희극이 공존하는 하루

그의 분석이 돋보이는 사례 중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변화와 정신 건강에 대한 분석이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모범적인 노동의 양상은 찰리 채플린처럼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 종신고용의 시대는 끝났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노동 시간을 조정(당)하는 것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일자리다. 그런 자유롭고 유연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비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스스로 자신의 고용주가 되어 필요한 능력을 계발하고 스스로를 자원으로 관리한다. 그러면서도 여러 재테크를 통해 다른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틈틈이 이직을 준비한다. 그 결과 회사에서는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노동자이면서도,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떨어질까 봐 다른 회사의 파업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지위에 있기도 하다. 그런 모순된 상황은 양극성장애(조증과 우울의 복합적 상태)로, 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불안정성은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사회에서 기인한 정신질환은 약물

그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제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각자가 혼자라는 생각을
만들어냄으로써
혼자 체념하고
현실을 수용하도록 유도하여
사태를 개인화하는 것이다.



과 상담을 통해 개인이 ‘치료’하도록 유도된다. 물론 의료적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앓고 있는 마음의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부적응으로 한정하고 각자가 알아서 대처하게 하는 구도를 보자는 것이다. 마크 피셔는 영국과 미국의 정신질환 통계와 대중문화를 적절히 예로 들며,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은 각자가 혼자라는 생각을 만들어냄으로써 (모두가 고통받고 있지만) 혼자 체념하고 현실을 수용하도록 유도하여 사태를 개인화하는 것이다.

디스토피아 SF와 시장만능주의적 감각

그렇다고 이 책이 딱딱하게 통계와 경제분석으로만 이루어진 학술적인 서적은 아니다. 오히려 대중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과 예시로 가득하다. 갱스터 랩과 록 음악, 픽사 애니메이션과 SF 영화(책의 표지부터 흥미로운 한 편의 SF 애니메이션이다)를 중형무진 오가며 현대사회의 감정이 어떤 경제구조에서 오는지, 경제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비평한다(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이 책은 마크 피셔가 블로그에 연재했던 글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가령 영화 <월-E>에서 그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면 된다는 시장만능주의적 환상을 읽어낸다. <월-E>는 지구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로 가득하고 황폐해진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인간은 모두 초거대 기업 ‘바이 앤 라지(Buy N Large)’가 제작한 우주선 ‘엑시엄’으로 망명을 가 있는 상태다. 미래의 인류는 자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비만한 상태로 탄산음료를 훌쩍이고 1인용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휴대용 모니터로만 서로 소통한다. 그러나 로봇이 모든 노동을 수행하기에 불편은 없다. 그리고 로봇 ‘월-E’가 우여곡절 끝에 지구에 피어난 새싹을 발견하면서 다시 지구를 회복시켜 주기까지 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해 지구가 황폐해졌지만, 다시 시장을 통해 지구를 대체할 공간을 마련하면 지구를 회복하는 행성 단위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영화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이다. 영화에서는 인간의 노동이나 개입 없이도 (로봇으로 의인화된)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이 신비롭게 알아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준다. 기술만 적절하게 개발하면 자원은 무한하고, 지구는 필요할 때 벗어버렸다가 다시 입을 수 있는 허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소비

를 줄이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지구온난화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화성으로 떠나면 된다는 식의 자본만능주의와 무한 팽창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낯설지 않다.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장을 축소할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역으로 신기술을 통한 시장의 확장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감각이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자본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도 말이다.

자본주의와 철학, 대중문화의 이어내기

처음 책을 펼쳤을 때 다소 낯선 이름들이 있어 당황할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자본주의라는 ‘현실’을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1934~)의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현대 철학자와 사상가의 개념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풍부하고 깊게 이끌어간다. 하지만 그 철학과 사상을 독자가 모르더라도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은 대중문화와 사회문화적 사건을 적절하게 가져옴으로써 철학적 사상을 실용적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과 현실, 작품을 책 속에서 이어내는 솜씨가 훌륭하다. 어디선가 이름은 계속 들어봤던 개념들을 더 쉽게 풀어주고 직접 적용하는 예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수확이 많은 독서가 될 것이다. 그의 솜씨 있는 글을 따라 읽다 보면, 마크 피셔가 도저히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시대에 대한 체념과 수용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대한 분석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부하는 작업이야말로 다른 상상력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인문학적 시각과 비평적 글쓰기가 세계에 개입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 책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❶

김건형 - —————
198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 문학동네신인상을 수상하며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현재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3월, 설렘 가득한 봄맞이 인기 도서는? ‘최근 3년간 3월 인기 급상승 도서 분석’

3월, 추위가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다. 계절이 따뜻해지는 만큼 이어나 새 학기 등 새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은 시기다. 그렇다면 3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도서관에서는 과연 어떤 책들이 많이 대출됐을까? 새출발과 관련이 있을지, 최근 3년간 3월 인기 급상승 도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리 이혜민 자료제공 각 출판사 데이터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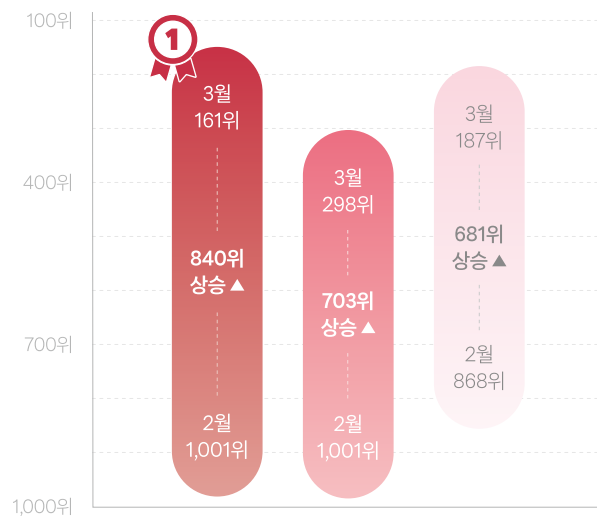
분석 기간 2021.3.1~2021.3.31. / 2022.3.1~2022.3.31. / 2023.3.1~2023.3.31.(검색 조건: 아동서를 제외한 일반도서 대상)

2021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지음 | 세계사 | 2020

박완서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째 되는 해를 맞이해 출판한 책이다. 그녀의 산문 660여 편 중 베스트 35편을 모아 놓은 책으로, 박완서가 남긴 진솔한 산문을 만나볼 수 있다. 작고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 꾸준히 회자되며 가장 박완서다운 글이자 소중한 유산이라고 평가받았다.



1위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에세이 결정판》

박완서 지음 | 세계사 | 2020

2위 《돈의 시나리오: 계획이 있는 돈은 흔들리지 않는다》

김종봉·제갈현열 지음 | 다산북스 | 2021

3위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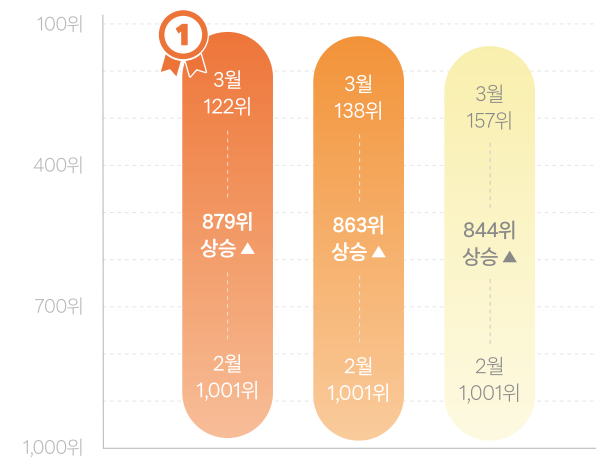
염승환 지음 | 메이트북스 | 2021

2022



센 강의 이름 모를 여인 기욤 뮈소 지음 | 양영란 옮김 | 밝은세상 | 2022

한국에서 2022년 당시 18번째로 출간된 기욤 뮈소의 장편소설이다. 기욤 뮈소의 소설은 자국인 프랑스에서는 물론, 국내와 세계 각국에서 출간되며 다수의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소설 또한 출간과 동시에 인기를 끌었으며, 디오니소스 신화와 센강의 데스마스크 이야기가 결합된 매력적인 스킬러다.



1위 《센 강의 이름 모를 여인》

기욤 뮈소 지음 | 양영란 옮김 | 밝은세상 | 2022

2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지음 | 클레이하우스 | 2022

3위 《나에게 고맙다: 책 읽어주는 남자의 토닥토닥 에세이》

전승환 | 허밍버드 | 2016

**그해 3월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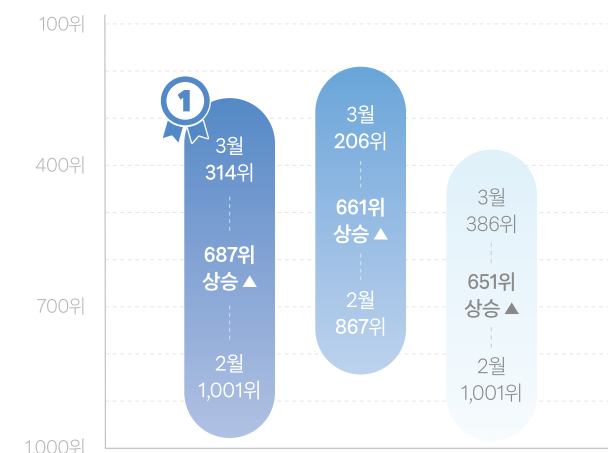
2021년과 2022년에는 그 해에 출간된 신작 소설이나 에세이가 인기를 끌었고, 특히 금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인 2023년에는 새 학기를 맞아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의 대출 순위가 급상승했으며, 나이 들에 대한 책도 세 번째로 순위가 급상승했다. 이러한 도서들은 해당 연도 3월에 가장 높은 대출 순위를 차지한 도서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해 3월,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것에 집중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2023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정승익 지음 | 메이트북스 | 2023

EBS의 수능 영어 강사이자 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이기도 한 저자가 펴낸 자녀 교육 에세이다. 부모와 아이에게 사교육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책으로, 사교육의 본질과 한계, 자녀 양육의 본질,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등에 대해 소개한다.



1위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지속가능, 실천가능한 사교육 줄이는 방법》

정승익 지음 | 메이트북스 | 2023

2위 《스카이 버스: 명문 대학으로 직행하는 초등 공부 전략서》

분당강쌤 지음 | 다산에듀 | 2023

3위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의 시간은 젊게》

정희원 지음 | 더퀘스트 | 2023

두꺼운 철학책도 어렵지 않도록 철학책을 읽기 위한 세 단계

우리의 삶은 변화와 선택의 연속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택의 원칙은 어때야 하는지 늘 고민한다. 이때 철학책은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삶의 실력을 키워주는 훌륭한 방법이 된다. 그런데 막상 읽으려니 도무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여기에 그 원인과 해결책이 있다. 자, 이제 철학책을 읽어볼까.

글 박순영(독서 컨설턴트) 참고도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박순영 지음, 미래문화사, 2023)



철학책을 읽는 이유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나름의 원칙과 그것을 매번 가다듬어야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여 각자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신념이 만들어지며, 삶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이 과정을 ‘예술’이라 표현한다면, 인생은 하나의 ‘작품’과도 같다. 철학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 실천이며 삶의 실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책을 읽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철학책 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철학책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다루기보다는 추상적인 대상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길지 않은 글을 읽을 때마저도 문장이 함축적이라서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무엇 때문일까.

철학책 읽기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 철학의 전문용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용어’이고 나머지 하나는 ‘맥락’이다. 철학뿐만 아니라 학문마다 전문용어가 있으니 그 사용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상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의미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도 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철학 용어가 더욱 어렵게 된 배경에는 번역의 문제가 있다. 흔히 철학을 그리스 전통으로부터 발전한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철학’은 ‘필로소피(Philosophy, 지혜에 대한 사랑)’의 번역어이다. 즉 ‘철학’ 자체가 서양철학을 지칭하기 위한 말이다. 그러다 보니 철학은 기본적으로 서구 전통의 구분이나 틀, 개념을 사용한다.

근대 초기 일본 학자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는 서구의 개념어를 한자어로 번역하면서 동양고전에서 단어들을 골라내거나 동양에서 쓰던 개념들을 조합하여 만들어냈다. ‘철학(哲學)’이라는 번역어도 니시 아마네가 선택한 것이다(‘희철학(希哲學)’을 먼저 썼으나 ‘희(希)’를 떼어냈다. ‘희철학’의 의미는 ‘지혜에 대한 사랑’보다는 ‘현인(賢人)이 되는 학문’에 가깝다). 이후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번역되었고, 서구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동양고전에서 채택한 단어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예를 들어 초월적인 대상(‘이데아’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형이상(形而上)’의 서구 원어는 ‘메타-푸지카(Meta-fusika)’, 즉 ‘자연(학) 너머’를 의미한다. 그러나 당초 《주역》에 나오는 ‘형이상’이라는 개념은 ‘형이하’와 함께 현실(자연) 세계 안에 있으며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현실을 ‘초월’하는 이데아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서구의 원어(原語), 동양고전에서의 개념어, 선택된 번역어 사이에는 조금씩의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가 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원어와 의미	번역어	번역어를 차용한 동양고전에서의 의미
Philosophy 지혜에 대한 사랑	(희)철학	동양 고전(주돈이의 《통서(通書)》)에서 ‘희(希)’는 “선비가 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士希賢’)
Meta-fusika 현실(자연) 너머의 초월	형이상	《주역》에서 ‘형이상’은 현실(자연)을 벗어나지 않는 개념

철학책 읽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 사유의 맥락

철학은 당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거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철학 역시 시대의 산물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인간의 사유물이다. 따라서 철학책, 특히 고전은 그 시대상을 미리 알아야 한다. 당시에 무엇이 문제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철학자가 자신의 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상태로 누군가의 ‘답지’만 보게 된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지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대화편》은 그리스 아테네의 몰락기를 배경에 두어야 하고, 칸트의 비판서는 과학의 위상과 당대 유럽의 사회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수월하다. 고전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도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읽는다면, 고전 특유의 사유 방식과 통찰을 여러 번 반복하며 읽게 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시대적 배경을 모른 채 고전을 읽으려 한다면, 읽기도 어렵고 의미도 없다.

철학책 읽기의 세 단계

철학책에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좋은 입문서를 읽고 그 책에 메모하며 정리하자. 입문서는 말 그대로 ‘입문’하도록 돕는 책이다. 내가 그 책을 읽고 철학에 대해 더 읽어보고 싶어진다면 좋은 입문서이다. 또 책을 읽으면서 다음에 읽을 책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면 좋은 입문서이다. 입문서는 되도록 구입하여 읽으면서 철학 용어와 맥락을 여백에 정리해 두자. 다음 단계의 책을 읽을 기초 체력이 된다. 입문서를 읽은 후 하게 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 입문서만 계속 읽는 것이다. 입문서는 두 권, 많아야 세 권이면 족하다.

둘째, 철학의 역사를 읽자. 철학은 결코 철학 자체만의 학문일 수 없다. 수학은 공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만의 세계가 구축된다. 그러나 철학은 사회와 문화, 역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표현하자면 ‘철학의 역사’이지만 이 말의 실제 의미는, 인간 역사의 굴곡마다 어떤 탁월한 인간이 어떤 사유를 남겨놓았나를 당대의 맥락에서 시간순으로 읽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사유의 맥락’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셋째, 문고본 고전을 읽자. 고전은 입문서와 철학사를 읽은 뒤 시도한다면 풍부한 배경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문고본 고전의 경우 내용이 길지 않고 후대가 간편하여 완결된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경험을 단시간에 이뤄낼 수 있다. ❷



박순영 ·

2016년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특허출원 10-2016-0028993)을 만들고 독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각종 독서토론 대회 운영 및 심사 위원을 역임했고 대학교·도서관 등에서 독서 동아리 멘토 및 토론, 독서, 인문학 등의 강연을 해오고 있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한 장의 감성



함께 나누다

2024년도 전국 도서관 직원
사서 교육 시작



「2024년 도서관인재 역량개발 세미나」 포스터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도서관 직원의 직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사서 교육훈련 과정 총 92개(154회)를 연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도서관인재 역량개발 세미나」 개최, 「교육과정 연계 사서학습공동체」 운영, 「도서관 데이터 전문 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3월 29일(금)에는 '초거대 인공지능의 시대, 도서관의 도전과 인재개발 방안'을 주제로 「도서관인재 역량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인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센터장, 배경재 동덕여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전망을 논의한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 모임'을 교육과정에 도입한 '교육과정 연계 사서학습공동체'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사서학습공동체는 6~8명으로 구성, 자율적으로 주

제를 선택하고 학습하는 연구 모임으로 1, 2차 심사를 통해 총 3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데이터 홍수 속에 사서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도서관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도서관 데이터 전문 사서 양성'과정을 연구 개발한다. 데이터의 수집·관리·분석·시각화 등 기초 역량뿐 아니라 데이터 사서의 주요 직무와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직무 역량에 기반한 학습 모듈을 설계하여 사서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사서한마당'은 9월에 개최한다. 전국 도서관 직원들 간의 업무 지식 공유와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자리로, '영상 콘텐츠 공모전'도 연계하여 열린다.

그 외 집합교육으로 '도서관 실무를 위한 저작권', '도서관 마케팅 전략', '도서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등 교육 대상 직무, 경력에 따른 수요 맞춤형 44개 전문 교육을 매월 기획·운영한다. e러닝 교육은 직무 관련 48개 과정뿐만 아니라 짧은 영상에 익숙한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학습인 마이크로러닝* 과정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83년부터 전국 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매년 100여 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교육과정 안내 및 신청은 사서교육 누리집(edu.nl.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도서관인재개발과 02-590-0554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기존 e러닝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학습 콘텐츠

2024년 ‘해설이 있는 K-컬처’
프로그램 운영



해설이 있는 K-컬처

국립중앙도서관은 2월부터 12월까지 신기술이 융합된 도서관만의
특화 콘텐츠를 전시 해설과 함께 즐기는 '해설이 있는 K-컬처'를 운
영한다. 1일 4회 운영되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외
국인을 위한 영어 전시 해설도 진행된다.

■ ‘해설이 있는 K-컬처’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운영 기간 2024년 2~12월
- 운영 회차 일 4회(10시, 13시 30분, 15시, 16시 30분)
- 관람 동선 「실감서재」→「지식의 길」→「열린마당」(1시간 소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
신청·참여 > 교육·문화프로그램

■ 실감서재

·수장고 체험

국립중앙도서관 수장고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3D 입
체 영상으로 연출



·검색의 미래

자료 간의 연관 관계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미래의 도서관
정보 검색 체험

- 인터랙티브 지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보급 지도 〈수선전도〉, 〈목장지도〉 등을
고해상도로 구현, 현재와 과거의 모습 비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여 살아 있는 콘텐츠로 재구성

· 디지털북

《동의보감》, 《자산어보》 등의 고도서 번역, 삽화, 애니메이션과 음향 효과 기술을 적용하여 생동감 있게 구성

- XR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귀중 자료 《삼재화첩》, 〈대원군운란〉 등
을 초고해상도로 감상할 수 있는 가상 미술관

■ 지식의 길

·작가의 노트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 문학 작품 속 연출 영상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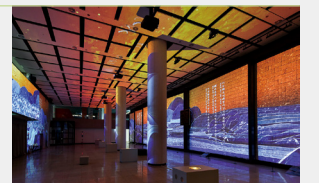
- 스마트라운지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도서를 추천해 주는 스마트한 도서 추천 콘텐츠

■ 열린마당

·K-문학의 재발견

한국 고전문학인 정철의 <관동별곡>을 현대적인 일러스트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작가와의 만남

이상 작가의 삶과 작품을 만나고, 인생네컷 사진으로 함께 추억
을 남기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문의 지식정보서비스과 02-3456-6169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도토리기자단’ 5기 모집·선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모집공고 포스터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주요 사업, 행사 등을 친근하게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2월 5일(월)부터 29일(목)까지 ‘도토리기자단’을 모집했다. 국립중앙도서관 ‘도토리기자단’은 ‘도서관을 토대로 세상을 리(아)롭게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해 5기 기자단을 모집하여 운영한다.

도서관과 책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사, 사진, 영상,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글(기사, 사진), 영상, 웹툰 세 분야로 나누어 총 10명 이내의 기자단을 모집하며 지원서, 콘텐츠 기획안 및 포트폴리오 서류심사를 거쳐 3월 8일(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5기 ‘도토리기자단’은 3월 말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3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날 맞아 그림 공모전 개최



「2024 어린이날 도서관 큰 잔치 그림 공모전: 나를 담은 책 속의 얼굴」 포스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올해 어린이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나를 담은 책 속의 얼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그림 공모전은 책을 매개로 한 활동을 통해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올해 2회째다. 이번 공모전은 유아 부문을 새로 신설하여 ▲유아, ▲초등저, ▲초등고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참가 방법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책 속에서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얼굴을 참가 신청서에 그림과 글로 표현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2월 26일(월)부터 3월 20일(수)까지이며, 참가 신청서 제출은 우편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0점의 작품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으로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5월 5일(일) 열리는 ‘2024 어린이날 도서관 큰 잔치’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3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다국어 동화구연」 영상 서비스 341종 제공



콘텐츠 이미지(숲속 사진관에 온 편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고,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책 기반의 「다국어 동화구연」 영상 341종 및 「K-그림책 큐레이션」을 누리집에서 선보인다. 2009년부터 시작한 「다국어 동화구연」 영상 서비스는 우리나라 창작동화와 전래동화, 외국 전래동화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6개국 언어*로 제공한다.

또한 341종의 「다국어 동화구연」 영상을 기반으로 분기별 「K-그림책 큐레이션」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전통문화 및 가족과 공동체 이야기를 큐레이션했고, 올해에는 우리나라의 명절과 기념일에 대한 큐레이션 영상 9종을 보여준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58

*6개국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일부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그림책 작가 창작 지원 사업
‘그리고 그림책’ 참여 작가 선정



2024년 ‘그리고 그림책’ 참여 작가인 김수진 작가의 책 《비늘과 파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월 1일(목) 그림책 창작 활동 지원 프로그램인 ‘그리고 그림책’ 참여 작가 20명을 선정·발표했다. ‘그리고 그림책’은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장서 및 서비스 전문성을 갖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작가 창작 활동을 통한 한국 그림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12월 18일(월)부터 2024년 1월 19일(금)까지 총 53명의 그림책 작가가 응모하여, 「2020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신해진 작가 등 20명을 선정했다. 심사는 학계와 출판계, 평론 및 전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모 신청서와 출판 작품 등에 대해 평가, 심사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외국 아동 자료 및 국내 어린이·청소년 장서 79만 권의 이용을 지원하며 워크숍 참가 제공 및 그림책 작가, 출판사 등 관계자 네트워크 등을 지원한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17

어린이를 위한 ‘기적의 도서관’ 부산에서 두 번째 개관 예정



(출처: 기적의 도서관)

2024년 4월, 부산진구 양정동에 두 번째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한다. 어린이들에게 독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부산진구의 민간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며 총 99억 6,500만 원이 투입된다. 해당 도서관은 어린이열람실을 비롯해 방과후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등을 갖춘 복합 시설로서 자리할 예정이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2003년 전남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 1호점을 개관한 뒤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건립 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2018년 강서구에 최초로 지어진 바 있다. 현재 건축물과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물품 배치와 도서 분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계룡시, 공공도서관 시니어 책배달 서비스 시행

충남 계룡시는 계룡시니어협회와 함께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인 ‘시니어 책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니어 책배달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및 대면 접촉이 제한되던 시기에 시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계룡시 공공도서관은 해당 서비스로 지난해 시민 881명에게 2,170회에 걸쳐 5,184권의 도서를 대출한 바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24년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책배달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

은 계룡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도서를 배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도서는 다음 날 책배달 서비스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책을 가지고 자택에 방문하면 받아서 읽을 수 있으며, 이전에 대출한 도서가 연체 중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충남 계룡시 공공도서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배달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파 책박물관, 한국 인쇄사 다룬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 개최



(출처: 송파책박물관)

서울 송파구의 송파 책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인쇄 역사를 다룬 특별 기획전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를 개최한다. 한국 인쇄 발전상을 고려, 조선, 근대, 한국전쟁기, 현대순으로 5부에 걸쳐 선보이며, 올해 8월 31일(토)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출판박물관에서 대여한 국보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권 13’의 복제본을 비롯한 140여 점의 자료가 공개된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책 권하는 도서관’ 사업 전개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이하 제주도서관)에서 지역 내 독서 문화 확산을 목표로 ‘책 권하는 도서관’ 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전하는 메시지와 키워드를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며, 2024년에는 ‘책, 세계와 관계하다’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책이 나, 우리, 그리고 공동체라는 세계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매월 각기 다른 소주제를 선정하여 도서관별로 북큐레이션 사업, 도서관 공동 행사 및 독서 문화 프로그램, 학교 지원 연계 사업 등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추진 예정인 책 문화 축제, 도서관 산책, 독서 공모전 등의 공동 사업은 올해의 주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나 도서가 활용될 예정이다. 월별 주제에 맞춰 사서가 선정한 도서에 대한 서평 등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 소개된다.

용인특례시 도서관사업소-용인교육지원청, ‘휴먼북’ 확대 운영

용인특례시 도서관사업소는 ‘휴먼북(Human Book)’ 서비스를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중·고등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휴먼북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용인특례시 도서관사업소에 등록한 뒤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문가 서비스 제도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작돼 2년 3개월간 총 266회에 걸쳐 416명의 독자들이 이용했다. 용인특례시 도서관사업소와 용인교육지원청은 중·고교 학생들이 진로, 독서, 예술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받으며 나

눔과 소통의 문화를 경험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만 운영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20회 이상, 연중 상시 운영된다. 휴먼북에는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등록해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에 휴먼북으로 등록한 뒤 신청이 들어오면 날짜와 시간을 조율해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게 된다. 현재 약 190명이 ‘독서·글쓰기’, ‘문화·예술’, ‘진로·직업’ 등 약 14가지 열람 분야에 등록돼 있다.

시흥시 배곧도서관, 영어 그림책 전시 3월 10일까지 운영



(출처: 배곧도서관)

시흥시 배곧도서관에서 영어 그림책 전시를 진행한다. 원래는 2월 중순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된다. 배곧도서관은 시흥시 남부권의 영어 특성화 거점 도서관으로서, 평소 접하기 힘든 영어 그림책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취지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시된 도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대출한 책들로, 칼데콧상 및 뉴베리상 수상작을 비롯해 <뉴욕타임스> ‘올해의 그림책’ 선정작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도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도서관 1층 로비의 전시 서가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도서 대출은 불가하다. 전시는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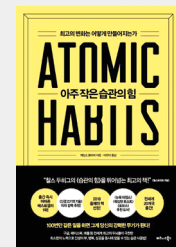
네덜란드국립도서관, 상업용 AI 훈련을 목적으로 한 장서 접근 제한



네덜란드국립도서관(출처: 위키피디아)

네덜란드국립도서관(Koninklijke Bibliotheek, KB)은 영리 기업이 AI(인공지능) 훈련을 목적으로 디지털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대한 개방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KB는 생성형 AI가 기존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며 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가와 삽화가, 출판사 등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이번 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KB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델퍼(Delpher)’와 네덜란드 문학재단이 설립한 ‘DBNL(Digitale Bibliotheek voor de Nederlandse Letteren)’의 웹사이트 이용 조건을 수정하고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 KB 매니지먼트 팀의 마르틴인 클레페(Martijn Kleppe)는 많은 AI 기업이 기존 데이터를 허락 없이 불러와 불분명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서, KB 장서에 기반한 연구를 독려하는 것이 KB의 목표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디지털 발전과 AI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 수립한 AI 원칙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국립중앙도서관, 2023년 대출 통계 발표 ‘전자책 대출이 종이책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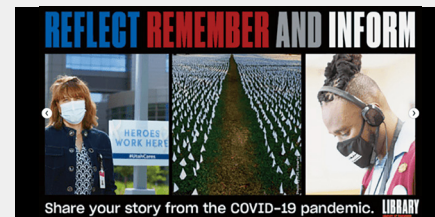
대만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자책 대출 순위 1위를 차지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한국어판

지난 1월 25일, 대만국립중앙도서관이 2023년 자국의 대출 통계와 대출 도서 상위 20권 목록을 발표했다. 대만국립중앙도서관 차오추이잉(曹翠英, Cao Cui Ying) 관장

은 2023년 도서관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2만 7,158명으로 26.5% 증가했고, 도서 대출 건수는 2022년 대비 3.45% 감소한 136만 473권이라고 밝혔다. 연간 대출 건수 중 종이책 대출은 약 63만 권으로 46.24%를 차지했고, 전자책 대출은 73만 권을 넘은 53.76%를 차지했다. 특히, 전자책 대출 건수가 실물 책 대출 건수를 넘어선 점은 디지털 독서의 거침없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3년 대만국립중앙도서관이 발표한 대출 도서 상위 목록에는 문학 분야 중에서도 로맨스 소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3년도 전자책 대출 순위 목록에서는 2021년, 2022년 연속 《아주 작은 습관의 힘》(Atomic Habits, 原子習慣)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인생철학, 투자, 재무 관리 등을 주제로 하는 책들이 상위에 올랐다.

미국 의회도서관, 코로나19 경험담 공유를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



코로나19 아카이브 웹사이트(출처: 미국 의회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은 모든 미국인이 자신의 코로나19 경험담을 공유하거나 코로나19 관련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하도록 독려하고자 코로나19 아카이브(COVID-19 Archive Activation) 웹사이트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이야기들은 미국민중생활연구센터(American Folklife Center)에 소장되며 누리집(archive, StoryCorps.org)에서 제공된다.

LC는 미국인들의 코로나19 경험을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 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사람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
(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가슴속에 만 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
그림과 글씨가 된다.

- 추사 김정희